

함께하는 겨울
이웃

December 2017 vol.179



태화에게 영스토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덧 태화에서 영어스토리텔링(이하 영스토) 수업을 진행한지 1년이 넘어갑니다. 영스토 수업은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어주기와 학습지,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도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화에서 <영어로 책 읽어주는 봉사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이 다가올 때마다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연희, 희지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과 주제를 고르고 수업을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처음 수업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제법 풍성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 덕분에 수업은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1년 전, 아직 어리고 수줍어 낮을 가리던 아이가 이제는 영어로 인사도 곧잘 하고 제가 지나가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지난 수업 때 배웠던 영어 단어를 기억하고 있거나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에서 남은 학습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선생님으로서의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귀여운 아이들과 영스토의 동아리의 자원봉사자 친구들, 지도 선생님 모두 태화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의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어 준 태화가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영스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글 양호연(영어스토리텔링 청소년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 양희지, 양호연, 최연희 (왼쪽부터)



December 2017 VOL.179

Contents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p>04 이웃과 인정이 꽃피는 「세곡동 LH3단지 복지센터」</p> <p>06 주민모임지원사업 「별별모임」을 소개합니다.</p> <p>08 20-30대 1인 가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청년사이다」 평생학습동아리</p> <p>10 건강과 활기, 힐링을 위한 공간! 「다목적 체육실」</p> <p>12 제1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장배 「어린이수영대회」</p> <p>14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미녀와 야수」</p> <p>16 태화가 만난 사람 스피치 재능 나눔이 손지에 아나운서</p>	<p>18 태화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이디어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p> <p>19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태화인 정동선교야행」</p> <p>20 TAIWHA NEWS</p> <p>23 후원소식 2017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p> <p>24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p>
--	---

표지 '청년사이다' 평생학습 동아리 참여자
박동산 주영성 손지에 정성희 김준규 장인식 (왼쪽부터)

2017년 12월 발행(통권 179호)

- 발행인 윤연주 ● 편집인 이사라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기획&인쇄 화이트 Tel.512.3747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어린이집, 태화초록교실, 태화해뜨는샘, 강남구청소년센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태화어린이집 Tel. 2040.1680 ● 태화초록교실 Tel. 2040.1698 ● 태화해뜨는샘 Tel. 2040.1780 ● 강남구청소년센터 Tel. 512.7942
-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Tel. 2040.1690



이웃과 인정이 꽃피는 세곡동 LH3단지 복지센터

글 차지현 사회복지사(사례관리팀)

하얀 눈처럼 따뜻한 말과 따뜻한 미소가 소복소복 쌓이는 계절입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지역 공동체'라는 태화 비전 아래 2017년 5월부터 "강남구 세곡동 LH3단지 복지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복지욕구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아파트 가까이 이웃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이동에 한계가 있는 노인, 장애인 세대는 복지서비스나 자원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LH3단지 복지센터"는 이웃의 관심이나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작은 복지사무소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가 각 세대를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주민 개인에게 맞추어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태화복지관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9:00

복지센터로 출근!

LH3단지 내 마련된 복지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10:00

주민 욕구 조사

LH3단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욕구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H3단지 주민을 잘 돕기 위해 복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욕구조사를 단지 내 주민에게 부탁드립니다. 낯선 이의 방문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고 부재하여 못 만나는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반갑게 문을 열어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00

정기방문 세대 만남

복지센터 사업이 시작되고 지난 7개월 간 방문하였던 세대 중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00세대를 정하였습니다. 세곡동 맞춤형복지팀 복지도우미와 세대별 방문주기에 맞게 찾아갑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혹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여쭙고 복지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알려드립니다.

13:00

사례관리 세대 만남

주민을 1:1로 만나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이웃과 어울리며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경청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결하고, 생동하도록 거들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가정방문을 허락해 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4:00

지역복지 학습공동체 '이심전심' 참여

세곡동 주민센터, 성모자애복지관과 함께 지역복지를 주제로 학습 모임을 가집니다. LH3단지를 잘 돕기 위한 실무자 학습 모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16:30

민·관 실무자 회의 실시

한 주간 방문한 세대를 잘 돕기 위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세곡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모여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어느 한 측의 만남으로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복지도우미로 방문했을 때 혼자 계시던 어르신께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병원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갔을 때 복지도우미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제가 가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하실 때 뿌듯합니다." —세곡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복지도우미

"단지 내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네요. 선생님께서 이웃 간 대화 나누고 살기 좋게 만들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추천해드릴게요. 또 오세요." —지역주민 A

LH3단지 복지센터는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눈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만남들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 존중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봄의 꽃들이 활짝 드리우는 것처럼, LH3단지가 이웃과 인정이 꽃피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여쭙겠습니다.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 간 관계가 살아나며,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곡동 LH3단지 복지센터 ☎ 010-4430-1659
세곡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 02-3423-8691~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 02-2040-1659



주민모임지원사업 별별모임을 소개합니다.

한 사회의 번영이나 안전을 묻는 항목 가운데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에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있는지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지를 묻는 것이며 이를 '사회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풍성할수록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라고 합니다.

글 번주희 대리(지역조직화팀)

2015년 '서울시민 마을생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 58%는 '같은 동네 이웃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했고, 68.1%는 현재 이웃관계에 대해 '지금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시민 열에 일곱은 데면데면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연관 지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의 핵심은 '빈약한 관계'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목하는 약자의 관계는 더욱

부실하고 고단하며, 시간이 지나도 관계의 질과 양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은 '주민(이웃)모임'이라는 구실을 통해 이웃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약해진 관계를 강화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지역주민들과 만나 주민모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으신지, 복지관에서는 어떤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관의 공간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등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통과 관계가 중심이 되는 주민모임'의 필요를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 간 취미활동을 공유하여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친목'을 목적으로 관계를 살리는 모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별별모임은 주민이 직접 활동의 주제를 제안하고, 담당자는 이를 접수받아 해당 모임에 함께 할 이웃들을 모집합니다. 최소 3명, 최대 7명 이하의 주민들이 모임이면 모임을 시작할 수 있고 복지관 내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모임의 횟수와 인원, 주기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하고, 준비물은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임은 격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들락날락 책모임',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캘리그래피 모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책 읽어주는 엄마 모임'과 '십자수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웃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요즘이 참 즐겁다고 하십니다. 2018년도에도 이웃과 이웃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성한 주민모임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oking is Fun



20-30대 1인 가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청년사이다」 평생학습동아리

바쁜 일상으로 '혼밥' 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은 요즘,
특별한 청년모임 '청년사이다'를 소개합니다.

글 박동산 대리(사회교육팀)



태화가 속해있는 강남구는 지역특성상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1인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마스크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1인가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청년 고독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20~30대의 청년 고독사 사건이 32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실업, 주거, 결혼 등 미래에 대한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에 모인 청년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이데인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사람과 어울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태화는 이러한 강남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 평생학습동아리 조직을 통해 20-30대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청년모임을 기획하였습니다. 평생학습(훈밥레시피, 꽃꽂이, 글쓰기, 스피치 강좌 등)을 매개로 6개월 동안 20여명의 청년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주선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에밀리, 장대리, 김사장, 제임스, 씨니, 도

깨비 등” 서로의 별칭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청년사이다’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 살다 보니 매일 인스턴트 음식이나 대충 끼니를 때우는데 훈밥 레시피 수업에서 배운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사귀게 되어 기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게 되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청년사이다’ 모임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모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년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과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을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여러 가지로 힘들죠?

결혼, 주거, 직장 등 미래에 대한 고민! 무조건 다 견디고 버티고 있는 청년들. 너무 움츠려 들지 말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을 매개로 청년들의 관계를 주선했는 ‘청년사이다’ 청년의 힘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태화는 청년중심의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뭐하지?” 하는 생각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청년 사이다」 모임을 통해서 마음 맞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 오유진 참여자

info

‘청년사이다’ 평생학습동아리

강남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청년층 대상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강남구 교육지원과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활기, 힐링을 위한 공간!

다목적 체육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기다림 속에 태화 다목적 체육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목적 체육실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글 전광우 사회체육지도교사(사회체육팀)



다목적체육실 1



다목적체육실 2

다목적 체육실은 두 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1실은 무대가 있고, 벽면이 거울로 이뤄져있어서 점핑과 같이 역동적이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운동과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2실은 기구필라테스 전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태화를 이용하는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보다 활기차게 다양한 운동을 즐기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다목적 체육실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몇 일내로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G·X 프로그램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반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된 다목적 체육실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점핑은 발목, 무릎, 등과 허리에 충격을 적게 주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나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입니다. 트램폴린 점프운동은 민첩성과 순발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몸의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점프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기구필라테스는 최근에 병원의 재활센터에서 예방의학과 재활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폭이 넓고, 건강상태, 체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신체적 불균형을 해소해 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막이완 볼 마사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마사지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공



크기의 마사지 볼로 등이나 허리,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성피로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짐스틱은 짐스틱 도구 하나로 대부분의 근력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로 장소에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 밴드의 탄성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에 가는 무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환운동 엑스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운동이 포함되므로 근력이 강화되어 대사율이 증가되며, 유산소운동의 효과 또한 포함되어 있어 단시간에 심박수를 높여주어 체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링은 척추의 S자 곡선과 아치, 가슴의 곡선, 신체의 많은 뼈와 근육이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형성된 인체의 바디아치에 전신의 "흔들림"과 "휘는" 운동효과를 주어 건강한 "바디아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도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목적체육실의 운동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았거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몸에 잘 맞는 운동을 아직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태화 다목적 체육실 문을 두드려주세요^^

☎ 사회체육팀 2040-1700

제1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장배

어린이수영대회



제1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장배 어린이수영대회,
그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글 김근영 대리(사회체육팀)

“겨울에 열리는 수영대회는 처음이지?” 지난 12월 2일 태화에서는 “제1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장배 어린이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개의치 않고 수영을 하면서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 수영회원들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려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발차기,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종목에서 멋진 수영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영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 모두가 가족들의 힘찬 응원 속에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행복한 가족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start

09:00 **개회식** — 대회에 앞서 윤연주 관장님이 수영대회에 참여한 선수들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수서 119 안전센터에서 센터장님과 직원들이 오셔서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고,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태화수영선수반 친구들이 시범경기를 선보인 뒤, 이어서 사회자의 개회선언과 선수대표의 선서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9:25 **준비운동** — 수영장에 입수하기 전 안전을 위해, 선수 전원이 몸을 이완시키는 준비운동을 하였습니다.



09:30 **전반부 경기** — 유아 킥판 발차기, 초등학교 자유형과 배영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등위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선수들이 25M 구간을 완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다려주고, 가족들이 더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11:10 **경기휴식 이벤트** — 전반부 경기를 마치고 시설을 정비하며 잠시 휴식하는 동안, 대회에 참여한 가족들과 두근두근 언제라도 기대되는 행운권 추첨도 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예쁜 수영모자 기념품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40 **후반부 경기** — 오후 경기에서는 평영과 접영 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이 열린 듯, 제법 진지하고 속도감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수영을 꾸준히 해왔던 고학년 언니, 오빠들의 접영 포즈가 남달라서 어린 선수들의 마음에도 많은 도전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4:00 **폐회식** — 모든 경기가 종료되고, 각 종목별로 최우수선수 발표와 상장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대회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수고했고 잘했다는 칭찬과 격려로 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영을 통해 더 튼튼하고 밝게 자라 갈 태화 수영꿈나무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1회 태화어린이수영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진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많은 점을 배웠고 뿌듯했습니다. 첫 대회임에도 진행이 매끄러웠고

시합 후 시상대에서 상장을 받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대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영대회 참여 어린이 학부모 -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자기관리를 위한 자립기술훈련프로젝트

이미지 메이킹! 미녀와 야수

글 김지나 사회복지사(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외모도 스펙”이라는 말처럼, 자기관리의 중요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필수요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단 비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일상생활, 취업 등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도 자신을 스스로 가꾸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주어질 많은 기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의 후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센터 내 전문적 운영을 갖추어 발달장애인 7명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STEP.1

자기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다지기
나를 바로알기 “WHO AM I?” 에서는요?
자기관리의 이유, 스스로의 탐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미지메이
킹 전문가의 개별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STEP.2

설계된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통해 “멋진 나로 성장하기”에서는요?

나에게 맞는 피부관리법과 여성을 위한 맞춤 메이크업 기술, 남성을 위한 안전한 셰이빙 교육이 진행되었고, 위생관리교육(손/머리 등 신체위생)을 통하여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STEP.4

자립기술훈련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 효과 확장시키기”에서는요?

공공시설 에티켓 훈련, 스스로 계획해보는 나의 하루, 내가 계획한 하루를 비장애아직공과 함께 체험하는 화려한 휴가, 나의 색다른 모습을 기념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서로의 달라지는 모습 속에 “왕자님 같다!”, “너 오늘 예쁜 것 같아!” 등의 칭찬이 오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당당한 표정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행동의 변화들로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자기결정의 기회들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여가를 기획해보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끌어 나아가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옷,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등을 연출해보며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메이킹 현장실습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 인식개선하기”에서는요?

지역사회 소비시설 이용(패션몰/헤어샵)을 통하여 인근지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하며 ‘소비자’가 되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STEP.3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를 가꾸는 방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지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책임과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하며, 발달장애인이 사람으로 또 성인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오는 모든 장애인을 향하여 축복의 눈빛과 손길을 함께 뻗어나가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스피치 재능 나눔이 손지애 아나운서

“인생의 변화를 이끄는 말하기”를 돕는
손지애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태화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클 이사라 대리(총무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손지애 스피치 컴퍼니(blog.naver.com/sja_sc)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방송인으로서 YTN 리포터, 교통방송, MC 등으로 10년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아나운서 출신의 스피치 강사로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피치 강의는 5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였는데,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저의 색깔에 잘 맞는 스피치 강사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화와 맺은 인연, 태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화복지관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인연을 맺은 것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 새로운 도전으로, 태화복지관에서 스피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태화복지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재능을 통해 태화복지관이 하는 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6년 가을에 열린 “우리동네 가을음악회”에서 처음 사회자로 서게 되었고, 2017년 5월에는

S P E E C H

“1st 태화 평생학습축제”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1인 가구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사이다” 평생학습동아리에서 6회기 동안 스피치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방송일과 병행하던 시기여서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도 청년이기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보람 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11월에는 태화복지관 내에 있는 강남구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성을 통해 매력적인 보이스 만들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당당한 자세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는 남자 청소년들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준 태화에 감사드립니다. 태화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태화의 여러 프로그램에 강사 또는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며 잠재력을 발견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과 뜻으로 연결된 관계들로 새롭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스피치 재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태화의 이웃을 돕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에 대한 기대 혹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태화복지관은 늘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열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오픈한 다목적 체육실의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운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화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업과 프로그램들을 각각에 꼭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기대되고 저도 힘을 보태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태화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이디어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글 홍지희 사회복지사(총무팀)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태화공동체’는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의 비전 중 하나입니다. 이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고민으로 “각 직원이 품고 있는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기관 운영과 사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직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이 모여 일하기 좋은 태화, 발전적인 태화를 위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태화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은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화롭고 즐거운 태화 공동체 관련”, “기관 운영 관련”, “신규 사업 아이디어 관련”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5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 모두 참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회의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플라워쿠폰으

로 격려하고 싶은 동료에게 깜짝 선물하기, 화장실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가방걸이 달기,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태화 사업 알리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별빛 마켓 열기 등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선정된 아이디어의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나가기 위한 향후 과정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심사 전 과정에서 발의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상식 때에서야 밝혀진 아이디어의 주인공들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처음 시도된 태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태화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견이 어우러진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모든 아이디어들은 소중히 검토되어 사업과 기관운영에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태화에서 일어나는 작고 의미 있는 변화들을 지켜봐주세요.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태화인 정동선교야행

「역사전문가이드의 해설을 따라 덕수궁에서 시작해 정동길을 걸어요. 조선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밝히는 동안, 동료들 얼굴에 깃든 아름다운 달빛 구경은 덤. 우리, 밖에서, 만나요. 밤에」라는 컨셉으로 정동선교야행을 진행했습니다.



글 홍지희 사회복지사(총무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모인 직원들이 무려 31명. 태화의 모든 시설과 팀의 직원들이 고르게 모여 가을밤을 함께 했습니다. 퇴근 후 덕수궁으로 함께 이동해 예쁘기로 유명한 정동길을 동료들과,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조선선교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김학천 선생님을 만나 선교적 비전을 담은 역사 가이드를 받았지요. "조선선교 순례를 통해 한국교회 역사 속 민음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마음에 새기는" 컨셉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제강점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조선인들에게 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조선 선교

사님들의 흔적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 숨은 헤이그특사였던 선교사님,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한 배제학당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태화의 직원들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1921년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 태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단풍으로 물든 가을밤의 정취도 느끼고, 동료들과 발걸음을 맞춰 걸으며, 무엇보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잠잠히 생각해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카페 '이웃사이' 1주년 기념행사



맘(Mom)모아 손잡(Job)고(Go) 사업으로 태화와 함께 하고 있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의 카페 '이웃사이'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지난 10월 13일에 열렸습니다. 카페 '이웃사이'는 주민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마을의 소중한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생각하며 주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만든 곳인 만큼 이웃 간의 격려와 감사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 '이웃사이'의 따뜻한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행복한 세곡동 만들기 프로젝트 '이심전심' 사례집 발간



행복한 동네 세곡동을 만들기 위해 세 개의 기관이 모였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 세곡동 주민센터, 성모자애복지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간 만나 배우고 글 쓴 내용을 담아 사례집 '이심전심'을 발간하였습니다. 1년의 과정은 각자 다른 환경 내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었고, 사례당사와 지역사회를 더욱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곡동을 위해 모인 하나의 동역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세곡동 주민들이 더 활짝 웃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벚꽃향연 시간여행 공연

2017년 강남구 노인특화사업 '벚꽃향연'에서는 지난 11월 16일, 20일, 25일 복지관과, LH3단지 경로당, 충신교회에서 세 번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며 준비한 것들을 지역사회 공연을 통해 나누며 아동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연에서 선보인 '벚꽃향연 시에는 "잠시면 사라질 짧은 인연, 우리 웃고 즐기며 나누는 순간으로 영원하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남의 순간은 짧을지라도 공연을 통한 즐거움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남고,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세곡동 리엔파크 인사나눔 캠페인



지난 10월 21일, 세곡동 리엔파크에서는 이웃 간 '인사 나눔'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리엔파크 5단지에서만 진행되던 활동을 리엔파크 전체단지로 확대하여 진행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세곡천을 걷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 써보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와 같이 리엔파크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며 정이 넘치는 동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태화수영선수반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종합 3위 수상



지난 10월 28일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에 태화수영선수반이 참여하였습니다. 선수들이 갈고 닦은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총 26개 종목,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가 개최된 11년 동안 3년 연속 종합시상대에 올라가는 유일한 팀이 되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과 또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수영선수반 친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공동체형성 워크숍

태화복지관이 소속되어있는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대명리조트에서 공동체형성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그대는 태화인!'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전국의 법인 산하기관 250여명의 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화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은 태화 96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921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소위된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한 섬김과 나눔에 더욱 앞장서는 태화인들이 되겠습니다.

태화해뜨는샘 클럽하우스 국제세미나 참석



태화해뜨는샘에서는 지난 9월 23일~10월 2일 9박 10일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클럽하우스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역동적인 토론문화와 끈끈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세미나 참여 후 방문한 파운틴하우스 투어는 클럽하우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이후의 맨해튼 자유여행은 자유롭고 다양성을 가진 미국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태화해뜨는샘의 회원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잠재력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길 응원합니다.

태화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열린 급식



태화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열린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중 상시로 부모님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부모님은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즐거움을, 부모님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청소년심터 Home coming Day!

지난 11월 19일 강남구청소년심터에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Home coming Day!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심터를 거쳐 다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돌아갔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 현재 심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선배들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억의 영상, 홈커밍 케이크 자르기, 선물전달 등의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소년심터를 잊지 않고 찾아 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SPONSORSHIP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 지역조직화팀 2040-1632

CMS 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의 동의아래 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지로후원

매월 초 가정 또는 직장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입금번호** 7607040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통장입금

복지관전용 후원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3-839930, 외환은행 272-22-00173-6, 국민은행 790-01-0035-287, 우리은행 725-157495-13-003

온라인 후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네이버 해피빈에서 사이버 머니(콩) 후원 <http://happylog.naver.com/taiwha.do>

신한카드 아름스 포인트 기부(해당사이트에서 복지관 검색) <http://arumin.shinhancard.com>

직접후원

복지관 지하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식품, 생필품, 도서, 의류 등 물품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후원

지역 내의 상점, 학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후원활동입니다.

나눔 분야 (상점, 학교, 학원 등 업체에서는 이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 : 학원, 개인교습소의 무료수강지원
- 위생 : 미용실·목욕탕 무료이용지원
- 문화 및 예술 : 공연장, 극장의 무료공연관람지원
- 보건 및 의료 : 병원·의원·약국 등의 무료진료, 약품지원
- 외식 및 생활용품 : 마켓, 식당의 음식, 생활용품 등을 무료제공지원
- 교통 및 이동지원 : 운수회사의 이동지원

2017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2017.1~2017.11)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전년도사업지정후원금 이월금	55,340,085	결연후원금	11,825,000
전년도 비지정사업후원금 이월금	34,685,046	교육문화사업비	44,487,990
사업지정후원금	43,340,100	사례관리사업비	32,396,035
비지정후원금	117,931,440	서비스제공사업비	45,286,953
결연후원금	10,211,230	지역조직화사업비	22,889,284
외부지정후원금	56,500,000	이종범장학후원사업비	4,500,000
예금이자	77,048	후원홍보비	27,301,930
		복지관운영비	2,989,400
		이월금	126,408,357
합계	318,084,949	합계	318,084,949

Thanks to SPONSOR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정기후원

강다영	강승애	강용석	강유경	강은영	문보영	문세훈	문신환	문영숙	문용기	이경진	이근아	이근영	이덕영	이명자
강푸른	강하영	강혜진	고경문	고기남	문용채	문지희	민옥희	박건수	박권욱	이명희	이미경	이미진	이병우	이복숙
고미정	고애영	고우경	고유진	고은정	박귀례	박동산	박명숙	박명진	박상선	이시라	이상욱	이선복	이성숙	이성주
고인자	고효영	구분환	권성오	권소영	박선영	박성분	박성원	박성희	박세희	이소연	이수연	이숙희	이순자	이영주
권영탁	권지현	권지혜	권현수	권혜경	박수연	박순례	박순혁	박유림	박유신	이원재	이원해	이원희	이 윤	이윤진
권혜진	길경자	길기태	김경희	김기수	박윤자	박윤정	박은지	박재진	박정훈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	이은희	이정석
김기원	김남희	김다숙	김다현	김덕형	박종부	박주한	박주현	박지영	박지원	이정심	이정자	이종은	이지연	이지현
김동준	김동희	김명란	김명희	김미나	박향미	박현경	박현주	방궁호	방동환	이진교	이창준	이현규	이형욱	인윤희
김민경	김민정	김보영	김성욱	김성은	방상익	방승찬	방정열	배경희	배명희	임덕순	임미해	임선빈	임성일	임이랑
김세정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수혜	배호균	배효범	백승훈	백재철	변주희	임종필	임채춘	임태희	임평화	임한샘
김승호	김애희	김연정	김영민	김영삼	서유정	서정민	서창배	설원희	성기원	임혜원	장민석	장성주	장수진	장영자
김용기	김원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기	성미경	성춘선	손문경	손문기	손문배	장용훈	장정아	장현규	장현숙	장혜령
김은숙	김은아	김은혜	김인관	김자옥	손문준	손영지	손유진	송충근	송혜란	전미나	전완기	전일배	전재윤	정경환
김재영	김종임	김주하	김준호	김지수	신근화	신대성	신선균	신순철	신승철	정다정	정민정	정민주	정세진	정수덕
김충식	김태은	김명중	김필수	김한나	신영주	신혜선	심대식	심우찬	심장식	정승엽	정승원	정애경	정연경	정연현
김현숙	김현정	김현직	김현학	김혜란	심형석	안나현	안여진	안정미	안정선	정영희	정용제	정원호	정윤성	정은수
김혜림	김항희	김희선	나명경	나선미	안지명	어윤희	엄선애	여수경	여운선	정의숙	정재훈	정진희	정현도	정혜욱
나윤일	나윤찬	남기현	남수영	남현우	여현정	염광철	오경애	오병두	오정철	정희정	조경현	조규필	조기한	조세진
남희선	노유경	도세훈	도창현	라미희	오종진	오하진	용도연	우정현	유인숙	조송미	조아라	조유희	조윤경	조일호
류담주	류재식	류호연	류효순	류희만	유한아	유혜선	윤민희	윤성주	윤송화	조창호	조태욱	주지원	주춘봉	지동현
					윤연주	윤은주	윤정아	윤지은	윤천성	진종백	진희경	차지현	채주희	최명범
					유희수	유희자	이기영	이경숙	이경아	최미숙	최민서	최병욱	최봉탁	최서영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 넉넉해지는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성실 최소영 최승만 최영복 최우란
최원경 최윤석 최재봉 최지아 최지웅
탁현우 하순천 하정길 한경희 한남희
한문덕 한성욱 한영희 한혜진 허진선
혜민 홍기연 홍승기 홍원순 홍지희
황부자 황영웅 황철준 황현정 강남선
한목자교회 바람빛교회 사랑뽕회
신성푸드서비스 재키헤어 타워하우스
타워하우스 피스코팩 한국미쓰비시
한빛교회

일시후원

기태원 김상욱 김수경 김윤아 김의찬
김인숙 김정은 유은주 박공순 신경아
윤성임 이규옥 이문희 이선영 정동인
조숙년 지기선 신한은행일원역지점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서울서복지재단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서원대학교 이마트수서점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결연후원

김금옥 김문성 김미나 김태권 문석주
박용덕 손선희 윤은숙 임장현 최미양
최재훈 최정훈 현정순
미국남가주사랑의교회

물품후원

김자옥 박준성 강남푸드뱅크 광장종합사
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다니엘복지
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디자인
마블스튜디오 몬스터팩토리 미니바이크
산돌기술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서울트레이딩 파리바게뜨수서동성당점
씨피유 알파문정역점 에스엠도이
이그린통상 인터텍스 일프로 크레용
장안종합사회복지관



Thanks to VOLUNTEER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원봉사해주신 고마운 분들

쑥쑥공부방

고재희 김동현 김서희 김에덴 김수빈 김은애 김현우 박 은
박준영 신동현 육예은 윤혜준 이승섭 이재윤 장선일 정신영
오지혜 이주현 최예훈 하예린

쑥쑥공부방 '맞춤형 멘토링'

김미영 김민재 김세림 김세연 김소미 김준서 김희수 류연지
박서연 박수민 박신영 백승현 백서연 안소영 은혜린 이상은
이우빈 임규민 정서윤 최수민 황규민

드림하이클럽 왕지은 임성주 장선일

날개를펴다 권윤호 신규현 장원영

'벗'꽃향연 김서희 진예희

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 멘토링 프로그램

김연주 김윤상 박서진 양지예 양주옥 이호열 조은아 주영성

굿맘 강예진 김에덴 이다현 이자연 유혜진 채주희 김경현

가족품애 김수빈 김에덴 안예인 유혜진 하예린

태화초록교실

권예지 김단비 배성준 신성민 이정윤 유수인 우정인 안태호
김성은 노태연 김은영 홍성욱 이재인 신예은 신예은 이만정
김윤미 포스코A&C 스타벅스코리아

가족도서실 이준혜 김송이 강정미

가족도서실 영어스토리텔링

김재우 김주영 김준서 변서윤 양호연 양희지 오은재 어유연
최연희

사랑의도시락

(조리)길태섭 김경미 김은경 명미숙 이상희 정수진 류경숙
노재숙 이수재 이승희 박현욱 조영희 공현주 황혜미
(배달)곽희영 양희정 김은경 김태영 박재완 신경호 이영옥
정난영 정남희 윤은혜 강영현

학습멘토링 고나연 김윤상

사회교육팀 이지은 오지연

이웃더하기

김동연 김은비 박은범 안서영 이도권 정 인

태화그레이트하모니오케스트라

강푸른 김가연 남윤재 박주한 배예지 심경자 유일영 유정영
장예지

사랑땀방

길태섭 김현주 노재숙 박현욱 서금숙 엄미숙 엄지연 윤은진
이남경 이은미 이정심 이종경 이지희 장 명 장재희 최양신
황 경

대학생 사회봉사

김새빛 김연경 김자영 박사라 방천남 원 문 유원선 이건우
이근주 이승원 이신우 이정인 이효원 임채은 전민정 전정민
정가희 정다희 허정윤 현승윤

생명존중사업 '동행'

강윤경 김미나 김양옥 김태양 윤 냉 이진영 임현아 정다영
정주연 홍정선

살맛나는 우리동네

권애희 김다인 김민경 김민서 김상욱 김숙희 김시경 김영숙
김은경 김의찬 김지윤 김태영 김태훈 김현정 김혜준 김호정
박기숙 박공순 박미화 박상현 박채영 변주영 서혜빈 송민호
신경아 신봉훈 심혜근 윤다현 윤진석 이서준 이용진 이윤미
이은정 이재인 이지윤 이현주 임소영 임소은 정동인 정지훈
허유리

후원행사 및 바자회

고 훈 권근화 권윤호 김병주 김에덴 김지태 김태우 김현지
문지영 박동경 박준서 배지윤 신기준 오주현 이다진 이보라
이주성 이환민 장보람 장선일 정초환 차인서 책임어주는엄마

1st 태화 '좋은이웃' 평생학습축제

이상우 나하영 김의린 문예준 이영민 이보라 박단비 정명자
정영훈 박성호 안여진 전유종 손종원 신지윤 최주영 강용현
김현식 이세진 강푸른 김지수 지다은 박동경 이서린 고 건
이세진

코스트몰

저렴한 가격에 패션 IT용품, 액세서리, 생활 잡화 제작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코스트몰은 패션 IT용품과 액세서리 잡화를 지난 2016년도부터 태화에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좋은 새 물품과 친절함으로 함께 해 주시는

코스트몰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코스트몰 www.costmall.co.kr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14길 7

태화와 함께 나눔을 실천 할 기업을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동행할 기업들의 물품후원, 기금후원, 자원봉사활동을 기다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하신 물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조직화팀 2040-1632



0635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Tel. 2040.1600 Fax. 2040.1791

www.taiwha.or.kr  www.facebook.com/taiwha